

2.40. 제주도에서의 뒷흰날개밤나방 발생상황 The Status of Occurrence of *Peridroma saucia* in Jeju

김동환, 김광식, 현재욱, 임한철

제주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

뒷흰날개밤나방(*Peridroma saucia*)은 1997년 제주도 감귤원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외래해충으로 기주범위가 넓고, 섭식량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충이다. 따라서 뒷흰날개밤나방의 관리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성충과 유충의 발생상황 및 가해식물의 종류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월동여부를 조사하였다. 유충은 주로 초생재배 감귤원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포장율은 11.1%였고, 섭식식물은 감귤, 감자, 망초, 떡쑥, 제비꽃, 여뀌, 바랭이, 깨풀, 별꽃, 광대나물, 까마중, 들깨, 동백나무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성페로몬에 의한 성충의 발생량 조사결과, 4~5월, 7~8월, 10~11월 3회의 발생피크를 보였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성충이 다량 유인되었으며, 전년도에 유충의 발생이 많았던 감귤원에서 번데기를 채집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뒷흰날개밤나방으로 나타나 제주도에 월동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아직까지는 작물이나 목초 등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제주도에 정착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섭식량이 매우 많고, 또한 먹이로 이용하는 식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해충이므로 지속적인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